

투데이 칼럼

유머로 상대방을 사로잡자

“인도는 지금 몇 시인가요?” 년센스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차문제를 생각하며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년센스로 생각하면 “네시지요~”라고 답을 하면 재미있다. “인도네시 아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고정관념을 깨는 순발력을 보는 질문으로 “하이(high)에나”라는 의미를 알면 웃을 것이다.

우리나라 리더들은 대부분 열굴이 굳어있고, 어찌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기업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부드럽고 웃음 넘치는 기업문화를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

야수들이나 경영자의 얼굴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유머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 구성원들에게 활용하는 유머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요즘 기업이나 가정에서 Fun의 경영이 인기인데 성공한 경영철학은 바로 재미있고, 재미가 있어야 성과도 좋고, 직장구성원들

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재미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감성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통이 있는 생활을 말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전봇대와 마주쳐도 30분 만에 친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정과 기업을 운영한다면 가정과 기업의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하고 년센스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이 재미있어 웃을까요?

많은 대답 중에서 “리본으로 묶어서”라고 대답을 하면 재미있고 유머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을 것이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이와 같이 유머 있는 사람이 인기있고 비즈니스에서도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무수히 많다.

유머는 웃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유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성공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바로 유머를 구사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

유머는 난처한 상황을 반전 시켜주는 무기 역할을 하는데 영국의 처칠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당의원들이 처칠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음을 지적하자 처칠은 연설을 멈추고 “죽은 새는 새장을 열어놓아도 날아가지 않소”라고 대답을 하여 연설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연설의 효과는 대단했다.

지식이나 논리로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도 상황에 적합한 유머 한마디가 웃음을 이끌어 내

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유머는 전염이 된다. 아빠가 웃으면 아이들이 따라 웃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재미보다 그 만큼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전염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머감을 끼우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시간(timing)이 맞아야 한다.

둘째, 장소(place)가 적합해야 하며,

셋째, 상황(occasion)이 맞아야 좋다.

이것은 T.P.O. 기법인데 모든 스포츠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훌륭한 유머리스트는 학습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가지씩 유머를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유머인간이 되자.

이렇게 습관화 해 두면 어느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유머를 구사할 수 있게 되어 현대를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유머감각을 키워 가정, 기업, 나라 전체가 서로 마음을 열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설

환자 단체 절규

의료계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의료계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이는 지난 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되고 입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했다.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게 환자를 위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다. 식도암 환우이기도 한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도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1개월 전 새벽에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했다. “새벽 2시 정도에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또 여러 가지로 응급실에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집에서 참고 견디고...”라고 했다.

응급실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자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여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었던 야당도 이견을 내비치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이 같은 여론이 극한 대립 구도 사이에 한후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해태 가격 인하

해태제과가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 내렸지만, 가격 인하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해태제과는 9월 9일부터 ‘계란과자’ ‘칼로리바란스’ ‘사투비아’의 가격을 평균 6.7% 인하한다.

소비자가격 기준 계란과자(45g)는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칼로리바란스 치즈(76g)는 2000원에서 1900원으로, 사투비아 통참깨(60g)는 15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내린다.

해태제과가 가격을 낮춘 제품들은 모두 밀가루 비중이 높다.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생겼다. 가공식품의 또 다른 주요 원재료인 설탕 가격도 내림세를 띠고 있다.

문제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가공식품 가격에 좀처럼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태제과와 같은 사제가 거의 없어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물류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해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원재료 값 오를 땐 곧바로 가격에 반영하면서 하락할 땐 모르쇠”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기업들의 ‘모르쇠’ 전략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려온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결국 기업이 매출 감소란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격 인상의 역풍을 맞은 미국 ‘펩시코(PepsiCo)’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카콜라 경쟁업체 펩시코의 올해 2분기 북미지역 음료와 스낵 매출액은 각각 3.5%, 4.0% 감소했다.

최근 2년간 분기마다 가격을 끌어올린 펩시코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한 결과다. 이런 현상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려온 국내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스타일-트레보스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자튀김을 만들어 건네고 있다.

스티비 워더 생일 축하 듣는 해리스 부통령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존스버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비와 조기 투표 행사에 참석해 스티비 워더가 불러 주는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를 듣고 있다. 스티비 워더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생일 위협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